

‘코로나19’ 여파 속 총선시계 속도

현역 본격 가세하면서 총선후보군 윤곽 ‘뚜렷’
 중도·보수 통합신당 출범따라 대결구도 복잡
 ‘코로나19’ 돌발 변수 등 여·야 암중모색 한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총선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선거구의 현역 의원들이 총선 레이스에 본격 가세하면서 후보군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여기에 중도·보수 통합신당이 오는 16일 창당될 경우 제주지역 총선 대결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하순쯤 정당별 공천

경쟁 구도 윤곽이 드러나면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예비후보들간 치열한 당내 경쟁이 펼쳐질 예정인 만큼 선거 열기도 한층 달아올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재 제주지역 3개 선거구별 예비후보는 제주시갑 10명, 제주시를 11명, 서귀포시 5명 등 총 26명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제주시를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경선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부승찬 예비후보와 당내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단수 후보인 위성곤 국회의원은 다음주 중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의 불출마로 전락공천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갑 선거구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전락공천설 속에 최종 경선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일단 이날 자유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 등과 합당을 의결하는 등 통합신당 출범이 확정되면서 제주시갑·을 선거구의 당내 경선은 3파전 이상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추이는 총선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코

로나19’ 사태로 도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안겨주면서 총선 민심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현역 국회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끌어 올려야 하는 후보자들은 행사 축소·연기와 약속 자제 등 선거 운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선거운동이 힘들어질텐데 후보자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걱정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보수 통합과 ‘코로나19’ 등이 총선 판도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간 암중모색이 본격화하게 됐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2024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체육관 건립

제주도, 총 363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체육시설(SOC) 중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오는 2024년까지 총 363억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4억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1개교에 총 47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1개교에 29억원, 2021년부

터는 미지원된 24개교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한림초의 경우 2018년부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수영장형)이 신축 중으로 올해 국비(10억)와 도비(5억)를 합쳐 15억원을 지원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도내 초·중·고 180개교(191개교 중 공동사용 11교 제외) 중 현재 체육관이 없는 24개교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건립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재외도민에 주말·성수기 항공권 할인

도, 재외도민증 혜택 확대 추진
 주요 관광지 할인 확대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재외도민증의 혜택을 확대하는 등 재외도민 분야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외도민증 제도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19년 기준 약 9만건이 누적 발급됐다. 재외도민증 소지자에게는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여객선 운임, 관광지 및 골프장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돼 왔다.
 하지만 혜택에 대한 실질적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며 따라 제주도는 재외도민증 활용 방안 확대와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주말·성수기에는 할인혜택을 적용

하지 않는 저가항공사와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확대해 나가며, 홍보 다각화를 통해 보다 많은 재외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미경신 정보에 대한 현행화 및 시스템화를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방안 등 조례상 필요한 부분도 보완·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제주대회 지속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외제주인 공감대 형성 방안 연구조사 용역도 상반기 중 추진하는 등 세계제주인 통합 허브 네트워크 구축의 기틀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오은지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자치도는 13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코로나19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정책 지속 발굴·실행’ 등을 결의했다. 강희만기자

제주경제 회복위해 ‘사드사태’ 이상 지원

어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출범... 현안 발굴 나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휘청거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마스스와 사드 사태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13일 도청 삼다홀에서 ‘코로나19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의장으로 ▷경제협력 ▷관광산업 ▷건설경기 활성화 ▷1차산업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획조정 등 6개 분야·130여명의 민간기관·단체·전문가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이날 총 5700억원(특별용자 3000억원·상환유예 2700억원)에 달하는 관광진흥기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마스스(특별용자 1300억원), 2017년 사드 사태(특별용자 300억원·상환유예 2280억원)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57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은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유무에 관계없이 융자한도 20% 확대 및

이자율 인하 등에 사용된다. 1000억원은 26개 업종에 대한 시설 개보수와 공연장·유아장 등 테마시설에 대한 건설·증설 용도로 지원된다.
 2700억원은 과거 융자금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업체(1139건)에 대해 조건 없이 1년간 상환을 연장하는데 쓰여진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용자 및 상환유예 지원계획’을 오는 17일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다음달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3개월간 수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알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별취재반 가동

한리일보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속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을 위해 14일부터 총선특별취재반을 본격 가동합니다.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취재와 주요 공약 및 정책 등을 검증하고 여론조사 결과와 다양한 기획기사 등을 통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특별취재반(반장 고대모 정치부장)

문미숙 부장, 부미현·오은지·이상민·송은범 차장, 이태윤·김현석 기자, 강희만 사진영상부장, 박세민, 이상국 기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전화 문의 : 064)750-2314, 750-2330, 750-2333

한리일보

www.bonbonauto.co.kr

새봄, 프랑스 감성이 깃든
고품격 푸조/시트로엥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PEUGEOT CITROËN

푸조 공식딜러
(주)봉봉오토모빌

- 중문전시장 739-0533(서귀포시 일주서로 532)
- 제주전시장 743-5001(제주시 오일장중길 100)
- 서비스센터 743-5002

푸조/시트로엥 서귀포 중문 전시장
 영업딜러 모집(2명)

- 근무지 : 푸조/시트로엥 서귀포 중문전시장
- 서귀포 중문 거주자 환영
- 접수 및 채용안내 : jhdo21@naver.com 010-9379-7701

POWER ON
 [푸조 전기차 Launching - 사전계약 접수중]